

장성호 수변길 <상품권 교환제>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되다!

매 주말 6~7천명이 방문하는 장성호 수변길 관광수요를 <상품권 교환제>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

□ 추진배경

- 제2출렁다리 개통(2020. 6.) 후 증가하는 수변길 방문객의 적정 수요유지를 통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및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상가의 소득 연계 방안 모색
-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'상품권 교환소에서 3,000원을 내면 지역상품권(장성사랑상품권)으로 전액 현금' 해 주는 리펀드 제도를 고안하여 추진

□ 주요내용(개요)

- 사업명 : 장성호 수변길 <상품권 교환제>
- 운영시기 : 2020. 8. 1. ~ * 토·일요일, 공휴일에만 운영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중순 ~ 10월 중순까지 운영 중단
- 대상 : 관외 거주 방문객
- 내용 : 일정 금액의 상품권 교환을 통해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의 관내 지역상가에서 더 큰 소비 유도



□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

- 업무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부담 및 이제 막 알려진 장성호 수변길에 입장료 징수라는 오해와 편견 상존

【극복노력】

- ▶ 상품권 교환 거부감 해소 등 <상품권 교환제> 시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집단지성적 토의와 철저한 사전 분석
 - * 사전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유사 사례(6개소) 벤치마킹 추진
 - * 관광지 입장료라는 인식 및 거부감 해소를 위해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
 - * 교환된 상품권 3천원을 쓰기 위한 (가족단위) 관광객의 더 큰 소비 유도

- 성공 불확실에 대한 우려 및 지속가능성 고민

【극복노력】

- ▶ 시책 성공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, 관내 유희지에 7년간 방치된 장옥을 리모델링하여 <수변길 마켓> 새 단장
 - * (기존장옥) 폭염, 강풍, 폭설 시 운영 불가 등 계절적인 한계
 - * (리모델링) 냉·난방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에서 연중 운영 가능
- ▶ <상품권 교환제>와 <수변길 마켓> 연계 상호 시너지 제고
 - * 교환된 상품권으로 수변길마켓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 제고 및 상품권 교환제 성공적 정착에 기여

□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

- 수변길 마켓 등에서 상품권 소비 정착 및 매출액 증가 추세

구 분 / 일 자	8월 일평균	9월 일평균	10월 일평균	11월 일평균	비고
합 계	2,361천원	-	4,902천원	5,965천원	
매출(현금+카드)	1,860천원	※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	3,616천원	4,405천원	
매출(상 품 권)	501천원	-	1,286천원	1,561천원	

- 교환소 운영 및 방문객 수 적정 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(4명)
- 장성 핫플카페 <오피먼트> 언론 보도 등 주변 상권 활성화
- (향후계획) <상품권 교환제>를 장성읍 상권까지 연계를 유도 하여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마중물 효과 모색